

눈사랑한길

2020년(통권71호) | 발행인_정규형 / 편집인_손준용 / 발행_기획실 / 등록번호인전배0104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5(부평동) 한길안과병원 / TEL_032.503.3322 / FAX_032.503.0801 / 디자인_(주)꽃을담다(02.325.9640)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NEWS LETTER
HANGIL



2020 autumn _ 071

한길안과병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원하는 분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한길안과병원은 정부의 엄격한 3번의 검증을 3번 다 통과한 명품 안과전문병원입니다.

1년에 1번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안과병원 직원들의 눈은 건강한가요?

전직원안과검진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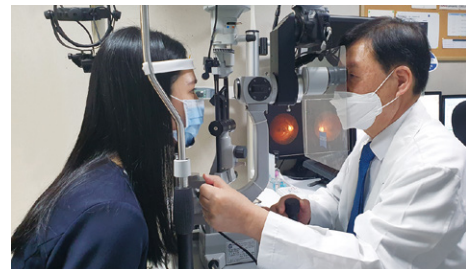
• 우리 병원이 지난 9월 7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 직원을 상대로 안과 기본검진을 시행했습니다. 보건관리팀이 주관하는 '2020년 직원 건강증진 및 예방 활동'으로 직원들은 4가지 검사(세극등현미경, 굴절 및 조절, 안압, 안저촬영)를 받았습니다.

안과병원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안질환은 심각해질 때까지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밀검사를 통해서나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는 사람이 많은 반면 시간을 내서 안과 검진을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정말 오랜만에 안과 검진

을 받았다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눈이 건강한 직원이 대부분이지만, 안질환 발생 위험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격자변성, 녹내장 등 질환을 발견해 치료를 시작한 직원도 있습니다. 빅토리아 국제진료파트장은 "시력이 좋아서 항상 눈이 좋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검진을 받은 결과 시신경이 얇아서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 조심해야 한다는 처방을 들었다"며 "정작 내 눈에는 소홀했는데 눈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에 신경 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시력이 좋아서 보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눈 안의 시신경, 망막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큰 병이 되지 않게

꼭 기억하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 안과병원은 고객과 직원의 눈 건강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원한-길부채나눔

• 무더위가 지속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우리 병원 국제진료팀과 홍보팀이 함께 만든 부채를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원래는 부스를 마련해 고객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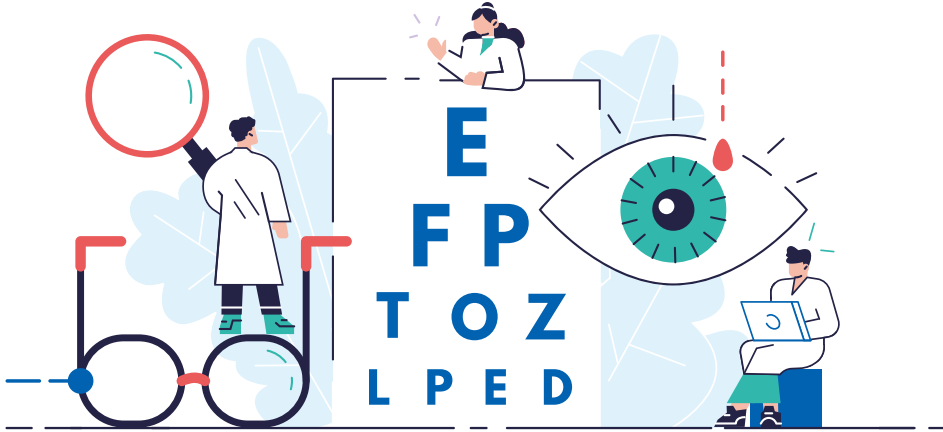
통하며 나눌 예정이었지만, 1층 로비에서 누구나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도록 무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관심을 보인 고객이 많아 3천 개의 부채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한 핸디선풍기가 대세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손부채를 애용하는 사람도 꽤 있는 듯합니다. 국제진료팀 이진선 직원은 "개원 35주년 기념과 함께 글로벌한 발전을 기대하며 제작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환자에게는 많이 전해지지 않아 다

소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어서 무더운 여름날 작은 시원함을 선물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하지만, 무더위는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남은 2020년 가을, 겨울에도 한길 안과병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망막이 벽지처럼 떨어지는 망막박리, 치료 늦어질수록 재발 가능성 UP↑, 최종 시력 DOWN↓



망막박리는 노화 때문에 유리체가 수축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도근시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젊은 환자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떨어진 망막이 잘 붙어아 시력이 회복되는데, 발견 후 치료가 늦어질수록 망막이 잘 붙지 않게 되어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최종 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망막박리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 및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아이돌그룹 몬스타엑스의 셔누가 '망막박리' 수술을 받아 화제였습니다. 망막박리는 우리 눈 안의 망막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258명의 환자가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으로 수술받았습니다. 망막박리는 백내장 등 다른 안질환에 비해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의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망막은 우리 눈 가장 안쪽에 있는 0.3의 매우 얇은 신경조직으로, 우리가 보는 물체의 상이 맺혀 이를 전기 신호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얇은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와 수많은 혈관이 분

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까다롭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우며 실명의 위험도 커집니다.

망막박리는 원인에 따라 ▲열공 망막박리 ▲견인 망막박리 ▲삼출 망막박리로 나뉩니다. 이중에는 유리체가 수축하거나 이동하면서 망막에 구멍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망막이 떨어지는 '열공 망막박리' 환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망막은 눈 속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맑고 투명한 젤리 형태의 유리체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노화, 염증, 눈 외상, 고도근시 등으로 인해 유리체가 수축하거나 액화하게 되면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납니다. 이를 '망막열공'이라고 합니다. 액화된 유리체는 망막에 난 구멍을 통해 망막 밑으로 들어가면서 틈을 벌리고, 결국 벽지가 떨어지듯 망막이 떨어집니다.

망막박리는 대부분 망막의 주변부부터 시작되고, 시력 역시 주변부부터 잃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악화되면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까지 망막박리가 진행돼 결국 완전히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견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떨어진 망막을 최대한 빨리 다시 붙여아 망막 손상을 줄이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레이저나 수술로 치료합니다. 초기 망

막박리는 레이저로 박리된(떨어져 나온) 망막 주위에 울타리를 치듯 레이저로 응고시켜 더이상 망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진행된 열공 망막박리의 경우, 망막에 난 구멍을 막고 떨어져 나온 망막을 원래대로 다시 붙여 재발하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공막돌출술과 유리체 절제술입니다. 공막돌출술은 망막을 눌러 구멍을 막기 위해 실리콘으로 만든 스펀지나 고무를 안구 밖에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유리체 절제술은 눈 안쪽으로 기구를 넣어 출혈, 염증 때문에 흐려진 유리체를 제거하고 떨어진 망막을 붙인 후, 망막이 잘 붙도록 가스나 기름을 채워 넣는 수술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수술 방법이 결정됩니다.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약 40% 정도입니다. 망막이 다시 제자리에 붙는 재유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발도 흔한 편입니다. 재발 시에는 점차 시력을 잃고, 결국 실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보다 훨씬 큰 수술이 필요 합니다. 망막이 잘 유착돼도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력이 회복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망막박리 증상 체크!

- ☑ 부분적으로 흐릿하게 보인다.
- ☑ 아예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 ☑ 커튼에 가려진 것처럼 시야 일부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 ☑ 물속에서처럼 흔들려 보인다.
- ☑ 날파리, 먼지 같은 것들이 눈앞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비문증).
- ☑ 빛이 없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인다(섬광증).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적정진료관리실



왼쪽부터 김정은 감염관리파트장, 김윤희 적정진료관리부실장, 박지현 QPS파트장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최전선에서 노력 중인 부서입니다. 바로 적정진료관리실입니다. 아침마다 선별분류소에서 직접 환자·보호자와 만나 문진표 작성을 지원하고,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총마다 돌아봅니다. 또한 코로나19 동향을 기민하게 주시하며 최신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에 지칠 때도 있지만, 늘 쾌활하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적정진료관리실 팀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1_ 자기소개해 주세요.

김윤희 적정진료관리부실장 일할 때 성취감을 느껴 행복합니다. 좋게 말하자면 열정적이지만 흔한 말로 빗대어 말하자면 오지랖이 넓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간호와 적정진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간호사 김윤희입니다.

김정은 감염관리파트장 안녕하세요~ 감염관리 파트의 김정은 간호사입니다.

박지현 QPS파트장 안녕하세요, 적정진료관리실 QPS파트장 박지현입니다. 2018년 6월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입사 3년차가 되네요.

Q2_ 요즘 병원에서의 일과를 말씀해 주세요.

윤희· 수술실과 적정진료관리실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술실에서 사랑하는 팀원들과 아침 인사로 파이팅을 외치고 수술을 지원하는 업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술실 업무가 안정되면 적정진료관리실로 이동해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 일일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보고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전화 상담도 하고, 방역 대처 방법을 논의해 결정하거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병원을 라운딩합니다. 중간중간 직원 채용 면접, 회의 참석, 팀원 면담, DUTY 관리 결재 등의 업무도 합니다. 매일매일 실패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정은·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합니다. 감염발생 감시, 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 관리, 손위생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더해져 병원 출입통제를 관리하

고, 감염병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외부정보를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현· 주 업무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인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어요. 확진자와 잠재 환자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환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니깐요. 그 외에는 원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3_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윤희· 어린이환자는 수술실에서 긴장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너를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단다"라며 "주사 맞는 게 제일 아픈데 씹씹하게 잘했으니깐 이제 아픈 건 없어"라고 새끼손가락 걸고 복사도 하는 등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엄마를 제치고 제 손을 꼭 잡고 무섭다며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그대로

안은 상태에서 마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와 제 역할이 바뀐 듯한 모습에 함께 있던 의료진들은 흐뭇하게 웃고, 아이 엄마도 무척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 관리를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환자도 꽤 있지만, 말 한마디라도 “고생이 많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할 텐데”라며 위로해 주시던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현 • 작년 ‘한국 의료 질 향상 가을 학술대회’에 남미정, 강은혜, 정다운, 김리아 선생님과 참석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교육을 마치고 해운대에 있는 숙소까지 도보로 20분 정도라는 말을 듣고 걸어서 이동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고박 한 시간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덕분에 저녁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올해는 제주도에서 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Q4_적정진료관리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와 보람될 때는 언제인가요?

윤희 • 4년에 한 번씩 의료기관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 준비 기간과 5일 동안 조사위원의 조사를 받을 때가 가장 힘들습니다. 4년간의 노력이 평가받는 데다 인증 획득 여부가 갈리니까요.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무시하 마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은 • 처음으로 준비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잘 마무리해 인증을 통과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반면 힘들 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 업무보다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것 같아요.

지현 • 인증기준이 새로 나올 때가 가장 힘들어요.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상급

병원에 맞춘 기준이 많다 보니 우리 병원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게 되죠. 보람될 때는 역시 인증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거니까요. 적정진료관리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결과에서 오는 희열이 있어요. 그맛에 아직까지 하고 있나 봅니다.

Q5_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직원과 고객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윤희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예방에 힘써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 수칙을 지켜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서로 배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정은 •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이 힘들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겨내 봅시다!

지현 • 우리 병원은 직원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병원입니다. 경영진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처럼 전 직원이 협력하면 어려운 시기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께도 문진표 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거니까요.

Q6_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윤희 • 먼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수행도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개선에 힘쓰고 발전에 앞장서서 직원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은 • 직원들이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인

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면에서 적정진료관리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현 • 사실 올해는 코로나가 주 이슈여서 환자 안전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내년에는 보고율 상승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 의료기관 인증 중간현장조사도 있는 만큼 원내 규정을 포함해 환경 재정비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움직이려고요.

My Favorite things

Music
 김윤희 적정진료관리부실장
 음악이라면 다 좋아요. 비가 올 때 발라드나 팝송을, 힘들 때는 경쾌한 가요를 들어요. 특히 Charlie Puth의 'One Call Away'나 리쌍의 '눈물'처럼 비트가 광광 울리는 음악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신이 나요!

좋은 노래와 스피커
 김정은 감염관리파트장
 피곤할 때 침대에 누워 클래식같이 조용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영양제
 박지현 QPS파트장
 각종 영양제예요. 건강해야 즐겁게 일하잖아요.



SK와이번스 '행복한 EYE 캠페인'

지난 8월 6일, 우리 병원과 SK와이번스가 '행복한 EYE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롯데디자인 츠와의 홈경기에 앞서 1루 덕아웃 앞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언컨택트로 이루어졌습니다. '행복한 EYE 캠페인'은 한길안과병원과 SK와이번스 이재원 선수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함께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이재원 선수가 KBO 정규시즌 동안 친안타 1개당 기금 10만 원을 적립해 지역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과 수술을 지원합니다. 캠페인 첫해부터 5년간, 이재원 선수는 총 588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개인기부금을 더해 총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적립했습니다. 2015년 12월 은지(가명, 만 2세)의 사시 수술을 시작으로 총 68명의 환자가 '행복한 EYE 캠페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재원 선수의 안타·홈런 기록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병원은 '의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병원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준홍 병원장은 "올해도 뜻깊은 캠페인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며 "이재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며, 우리 병원도 변함없이 인천 시민의 눈 건강을 지키고 지역과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친절직원



아픈 눈과 함께 이로 불편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우리 병원 친절직원을 소개합니다. 친절직원 및 사원은 각 층에 설치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모집했으며,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추천했습니다.

진료부 임태형 라식센터장(진료과장)

추천인 김○소님 안녕하세요. 저는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임태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대해 꼭 알리고 싶어 하시기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 한길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난생처음 하는 수술에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후 긴장 탓에 빠근해진 팔을 주무르고 계셨는데,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발길을 돌려 어머니의 팔을 주물러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의사는 본 적이 없다며 지금도 그때 일을 종종 이야기하십니다. "환자가 팔이 저리다고 해서 어느 의사가 팔을 주물러 주겠어"라며 "내가 의사 복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기검진으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선생님은 어머니께 그동안의 안부를 세심하게 물어봐 주십니다. 여러 환자를 보느라 지치고 피곤하실 법도 한데, 형식적이고 번한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이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의 그러한 점이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씨와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병원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져 녹아 없어지신다며 말이에요. 선생님은 옆에 서 있는 제게도 인사말을 건네주십니다. 병치레가 잦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임태형 선생님처럼 환자 보호자에게도 안부 인사를 건네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호자까지도 챙기시는 그 마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술만큼 인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는 아주 많겠지만, 임태형 선생님처럼 의술과 인술을 겸비하신 분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해요. 저와 어머니는 선생님께서 얼굴을 찡그리시거나 환자를 외면하는 모습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임태형 선생님 덕분에 한길안과 병원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좋은 의사 선생님도 계신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형 선생님. 늘 웃는 얼굴로 저와 제 어머니를 대해주시고, 어머니의 백내장도 낮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호부 병동간호팀 박혜원

추천인 김오웅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김철우 선생님께서 집도하시는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당시 저는 오전 11시경 잡힌 수술을 위해 이른 아침 내원했고, 수술 전후로 610호 병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6층에서 근무하시며 저를 도와주셨던 박혜원 간호사님이 참 고마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네요.

간호사님께서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셨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환자였던 저는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처음 받는 수술이니 조금 떨리고 무서웠는데, 간호사님 덕분에 안정을 취할 수 있었어요. 아프고 힘든 환자들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 주시는 것에 비해 정작 본인은 고달프고 힘들어 웃음을 잃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커피 교환권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지만, 호의라 해도 바쁜 와중 낮선 이의 그런 행동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대신 글을 작성해봅니다. 앞으로도 아프고 힘든 환자분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호부 외래간호2파트 최미선

추천인 김오옥님 최미선 간호사님께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믿고 수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천인 김오철님 최미선 간호사님! 상냥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간호부 병동간호팀 정다운

추천인 임오철님 정다운 간호사님은 목소리부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참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한길안과병원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추천인 안오상님 입원부터 퇴원까지 어려운 환자임에도 배려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정다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길안과병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간호부 병동간호팀 백영아

추천인 류오식님 입원 중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추천인 고오숙님 부드러운 음성으로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간호부 외래간호3파트 김정혜

추천인 익명 10번을 방문해도 언제나 웃는 얼굴이 서서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추천인 최오애님 내원할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바비실 텐데도 궁금한 점을 여쭙볼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늘 감사드려요.

검사실 검사3파트 최윤정

추천인 김오희님 검사하는 동안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무심사실 원무팀 정유영

추천인 최오혜님 정유영 선생님! 보험 청구 서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수납 중 보험사에 전화하는 동안에도 친절하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료부 임태형 라식센터장(진료과장) | 간호부 병동간호팀 박혜원 | 간호부 외래간호2파트 최미선 | 간호부 병동간호팀 정다운 | 간호부 병동간호팀 백영아 | 간호부 외래간호3파트 김정혜 | 검사실 검사3파트 최윤정 | 원무심사실 원무팀 정유영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안과와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력과 의료진의 눈 질환 완벽 케어”

대학병원에 견줄 만큼 우수한 33명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믿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고가의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220여 개의 전문 안과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멀리 해외까지 입소문 난 병원”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한길안과병원만의 특별함

- 6개 전문센터 종일 외래 진료 가동
- 전문센터 간 빠른 협진으로 안과 전 분야 통합진료



365일 눈 건강을 생각합니다

WWW.HANGILEYE.CO.KR

진료안내

대표전화 : 1577-7117
 기타안내 : 032) 503-3322
 라식센터 : 032) 529-1001
 평일진료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점심시간(12:30~13:30)을 피해서 오시면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영상(유튜브 등)

인구보건복지협회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유아용: 눈누와 함께 알아보는 소중한 눈
 김철우 교육수련부장 자문
 2020.9.18.



인스타그램 hangileye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hangil3322

지면(신문 등)

의학신문 외 2개 매체
 김윤희 한길안과병원 간호차장,
 '제10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2020.6.23.

연합뉴스

[포토무비] 30도 넘는 더위에
 약도 상할 수 있어요!
 이상목 진료과장 도움말 게재
 2020.7.13.

데일리메디 외 10개 매체

한길안과병원, '행복한
 EYE 캠페인' 진행
 2020.8.9.

